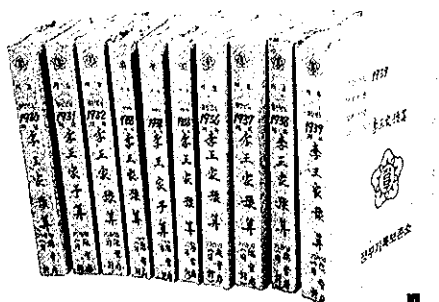


이왕가예산관계문서철



- 생산년도 :昭和 5年~昭和 14年(1930~1939)
- 생산기관 : 조선총독부 재무국 사계과

문서 번호	관리번호	문 서 철 제 목	생 산 년도	MF 번호	총면수
88-16	CJA0003921	소화5년도이왕가예산 (昭和五年度李王家豫算)	1930	88-846	388
88-19	CJA0003924	소화6년도이왕가예산 (昭和六年度李王家豫算)	1931	88-847	305
88-22	CJA0003927	소화7년도이왕가예산 (昭和七年度李王家豫算)	1932	88-847	326
88-24	CJA0003929	소화8년도이왕가예산 (昭和八年度李王家豫算)	1933	88-848	280
88-26	CJA0003931	소화9년도이왕가예산 (昭和九年度李王家豫算)	1934	88-849	306
88-27	CJA0003932	소화10년도이왕가예산 (昭和十年度李王家豫算)	1935	88-850	288
88-28	CJA0003933	소화11년도이왕가예산 (昭和十一年度李王家豫算)	1936	88-850	309
88-29	CJA0003934	소화12년도이왕가예산 (昭和十二年度李王家豫算)	1937	88-850	315
88-30	CJA0003935	소화13년도이왕가예산 (昭和十三年度李王家豫算)	1938	88-850	284
88-32	CJA0003937	소화14년도이왕가예산 (昭和十四年度李王家豫算)	1939	88-851	331

이 왕직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한 이후 기존의 대한제국 황실 업무를 전담 하던 궁내부를 계승한 것으로, 이왕직 관제는 1910년 12월 30일에 발표된 “황실령

(皇室令) 제34호"에 의해 제가되었다. 그리고 1911년 2월 1일부터 궁내부의 각종 업무를 접수하여 일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왕직은 순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왕직에서 관할하는 이왕가에는 순종 이외에도 고종, 왕세자, 이희공(李熙公), 이강공(李堉公) 등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거주하는 곳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왕직은 고종, 왕세자, 이희공, 이강공의 거처에 파견소를 설치하여 이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왕세자는 1907년 당시 조선통감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에 머물게 된 이후 계속 강제 체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왕직의 세출 예산은 경성과 동경의 이원체제로 이루어졌다.

이왕직(李王職)은 이왕가의 재산, 제사, 도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이 독립국이었을 때에는 궁내부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왕실이 직접 장악하였지만 병합 후에는 이왕직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왕직 직원의 임명이나 상벌 등은 궁내부 대신의 소관이었으며 동시에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이왕가 사람들은 일본 천황의 친족으로 간주되어 이들의 출생, 명명, 혼인, 사망, 기타 중요한 사건은 궁내대신이 관장하였으며 동시에 인적사항도 관리, 보관하였다. 이는 대한 제국 황실을 일본 황족에 준하여 예우한다는 명분 하에 일면 회유, 포섭한다는 측면과 함께 이들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왕직은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이왕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이왕직을 통해 궁내부에 보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솔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직의 예산은 조선총독을 거쳐서 궁내대신의 재가를 받아 집행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내에서는 이왕가세비 항목으로 일정액의 세비(歲費)가 지출되고 결산 처리되었다. 세비는 1910년 750,000원이었으나 1911년부터 1920년까지는 1,5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1921년 이후에는 1,800,000원으로 인상이고 고정액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는 따라서 이 세비(歲費)의 예산 및 결산 금액만이 포함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역시 이 세액(歲額)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가의 세입세출예산은 조선총독부의 세비이외에 별도의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자세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은 이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왕가 예산관련 문서들은 1930년부터 1939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다. 이들 문서철은 당해년도의 이왕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서류로 활자 인

왜된 자료와 필사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철은 이왕가의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이왕가예산강요(李王家豫算綱要)>, <이왕가예산(李王家豫算)>, <이왕가예산증감비교표>, <이왕가예산산출명세서>, <부 계속비산출명세서(附 繼續費算出明細書)>, <세입 계산서>, <경비증가요구내역서>, <경비감액내역서>와 <추가예산에 관한 건>, <이왕가 세비 세입세출결산서(歲費歲入歲出決算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왕가예산강요(李王家豫算綱要)>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과 세입, 세출총액을 정리해 놓았다. <이왕가예산>에서는 세입, 세출예산액을 관(款)-항(項)-목(目)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이왕가예산증감비교표>는 세입, 세출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입, 세출결산액과 비교한 일람표이다. <이왕가예산산출명세서>, <부 계속비산출명세서(附 繼續費算出明細書)>는 세입, 세출예산액의 산출 내역을 밝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을 정리하였으며, <경비증가요구내역서>, <경비감액내역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예산에 관한 건>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항목이지만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 1931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6년도이왕가예산》에 의하면 1931년도 이왕가 예산 총액은 세입 2,166,127원, 세출 1,965,621원(경상부), 100,506원(임시부) 합계 2,166,127원이었다. 이 액수는 전년도인 1930년도 예산총액 2,203,505원에 비해서 37,378원 감소한 것이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歲費)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 및 급여여로 563,333원이며 다음으로 이강공가 보급금 120,000원, 영선비 78,863원, 임시편찬비 53,243원, 덕혜옹주 결혼 제경비 55,000원, 제수비 327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1년도 이왕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보면 이강공이 1930년 6월부터 은거하게 되어 왕가로부터 1년에 12만원을 하사받기로 되어있어서 1930년에 월할액(月割額)이 추가예산으로 계상되었고 1931에도 그 년액(年額)이 계상되었다. 이해에는 덕혜옹주(德惠翁主)가 봄에 결혼하기로 결정되어 혼의(婚儀)에 요하는 제 경비가 임시부에 계상되었고 혼례 후에 종가 가계비에 대해서도 특별히 원조를 위하여 정례보급금 중에 상당액이 계상되었다. 덕혜옹주의 결혼 경비로 인해서 1931년은 불가피하게 특별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나머지 지출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당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어서 5~10%의 절약 효과를 얻게 되어 이 해 이왕직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왕가의 친척인 민영찬(閔泳玟)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왕가의 친척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보고 정례보급금 중에 계상하여 왕가 예산에서 특별히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伊藤博文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왕가에서도 기부금을 내기로 작정하여 전년에 이미 그 반액을 하사하였고 1931년도에 그 나머지를 하사하기 위해 소요액을 임시용금에 증가 계상해 놓았다. 아악부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일본 동경에서 근무하는 무관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위한 예산 증가도 보인다.

1931년도에 편성된 계속사업비로는 고종·순종실록편찬비(高宗·純宗實錄編纂費)를 들 수 있다. 고종·순종실록편찬사업은 1927년부터 시작되어 1935년 완료되었다. 실록편찬을 위해 이왕직에서는 임시고용원 10명, 집필생 26명을 배치하고 실록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와 정리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확보되자 1930년 4월부터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실록 찬술작업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본년도에도 실록편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6월에는 예비금 지출을 위한 건이 이왕직회에서 통과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이건공가(李鍵公家)에 보급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건공가의 세출은(전년 6월 이후는 李堦公家) 때에 따라 다소의 증감은 있었지만 1929년도 이전에 있어서는 일년에 대략 11만원 정도였고 세입은 왕가에서의 보급금 8만원 외에 어장(漁場)수입 약 3만원으로 충당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해마다 어획고가 감소하고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장수입이 체감하는 추세였다. 그리하여 어장수입으로 더 이상 세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30년도에 어장을 전부 매각하였고 그 대금을 공가의 기본재산으로 삼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려고 하였는데 예정대로 매각예기(賣却豫期)가 되자 그 대부분을 연부 불입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매각대금의 총액은 800,055원인데 그 중 일시불입은 겨우 15,755원이고 5개년 연부 불입액 146,050원, 단 이 중 48,365원은 전년도에 불입하였고 나머지는 1931년도부터 5개년 연부로 하고 10개년 연부불입은 538,250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어장을 매각한 공가는 대부분 재산수입의 전부를 잃고 자못 어려움에 빠져 193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부, 임시부 합계 63,481원(그 중 3천원은 예비금)으로 긴축하였다. 따라서 그 재원으로 1931년도 수입으로 어장매각대금 연부불입금 93,382원 중 10개년 연부 53,825원의 반액 즉 26,912원을 경비로 조입하기로 하고(기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함) 5개년 연부에서 생기는 이자 13,150원(10개년 연부이식)과 잡수입 60,050원으로 하였다. 거기

에 더해서 왕가의 보급금 22,769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1931년 6월 13일 이왕직회 제173호에서는 이건공의 결혼에 맞추어 동경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증액을 결의하여 당해 연도분 46,102원의 사용을 승인받았다. 또 1931년 7월 2일 이왕직회 제178호에서는 영선비 22만원을 예비금으로 지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 지출될 영선비는 낙선재(樂善齋)를 개축하기 위한 경비였다. 낙선재는 대비가 이주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축(改築)을 했지만 서제로 충당할 방이 없어서 후정(後庭)에 간소하게 건축되어 있었다. 또 신영(新營)에 있어서 향연을 할 경우 배선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서 증축하고 공대소(供待所)를 개축하기로 하여 영선비를 지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경성부내 북부 간선도로개설에 따라 덕수궁, 종묘를 연결하는 육교를 가설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비 7,900원은 경성부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931년 12월 14일 이왕직 장관 한창수는 이왕직회 제361호의 결의에 따라 이건공의 결혼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급금 6,981원, 임시용금(臨時用金) 20,375원의 지출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그런데 이 지출에 대해서 이미 병합 당시 공가에 대해서 황족으로서의 명예, 대우를 지키기에 족한 거액의 유지자금을 지급하였는데 다시 보급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본국 황제는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서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 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병합조약 제4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하였다. 다만 금번의 경우 이건공의 결혼에 즈음하여 소요되는 임시경비에 대한 보급금으로서 사정이 부득이 함을 감안하여 승인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보급금 지급에 제한을 두도록 하라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1931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 2,457,643원으로 예산액 2,411,588원보다 46,055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2,411,588원으로 예산액 2,166,127원보다 245,461원 증가하였다. 예산보다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역시 덕혜옹주, 이건공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된 경비 및 부동산 구입을 위한 지출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 1932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7년도이왕가예산》에 의하면 1932년도 이왕가 예산은 세입 2,013,024원, 세출 1,799,591원(경상부), 213,433원(임시부) 합계 2,013,024원이다. 전년도인 1931년의 2,288,737원에 비해서 275,713원 감소하였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은 전년도

에 왕실 내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이월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32년도 이왕가 세입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비수입으로 1,800,000원이다. 그리고 삼립수입(임산물 매각대금) 48,473원, 기본재산수입으로 채권이자 및 주식배당금이 8,465원, 예금이자 24,097원, 합계 32,562원, 창경원 입장료 수입 36,000원, 부동산 임대수입 12,400원 등이 있다. 1932년 당시 창경원 입장료는 대인(大人) 10전, 소인(小人) 5전인데 이해에 입장인원으로 대인 28만명, 소인 16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1928년 입장료수입 45,286원, 1929년 55,356원, 1930년 41,274원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다.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친척 중에 가계가 곤란하여져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도 위협받는 자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왕실의 명예에 손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예산에서 보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문건이 있다. 그런데 그 명단에서 이원용, 윤용구의 이름이 눈에 띈다.

왕실에서는 왕전하 전용 자동차 및 동경 사무용 자동차 각 1대씩을 구입하기로 하여 필요한 소요액이 차마비(車馬費)에 계상되어 있다. 또 일본에 있어서 2개년 계속사업으로 피서지에 별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1932년도에 그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경비증가요구액 내역에는 흥미로운 항목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왕실의 마필(馬匹)이 195두(頭)에서 259두로 64두가 한꺼번에 증가함에 따라서 사료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 정조의 세 번째 환력(還曆)을 기념하는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가 요구한 것, 왕전하가 입원함에 따라서 수고한 자들을 위한 하사품 구입액을 요구한 것, 순종의 붕어(崩御) 이후 폐궁시켰던 덕수궁을 일반에게 개방하기에 앞서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 1932년도 이왕가 추가예산에는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에 계약한 덕혜옹주의 교육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전해에 옹주가 결혼하였으므로 시가(媳家)에 하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때에는 아직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편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왕가에서 옹주를 위해 교육보험을 들었고 보험금을 수령해서 시가에 하사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다.

1932년 11월 7일 이왕직 제307호에서는 자작(子爵) 이기용(李琦鎔)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비금을 지출할 것을 결정, 신청한다는 문건이 보인다. 이기용은 1930년 11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무를 조사한 결과 원금 164,513원 75전, 이자 146,791원 98전, 합계 311,357원 13전이라는 거액에 달했다. 이기용은 일찍이 1916년 가정정리를 했던 일이 있

있고 그후에도 여러 차례 이왕가에서 부채를 부담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기용은 왕가의 다른 친척에 비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사정이 부득이 하여 다시 채무 변제를 위해 예비금에서 지출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총독은 지출을 승인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친척들 중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청원에 대해서 일체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1932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결산은 세입부 2,217,880원 62전, 세출부 1,854,698원 15전(경상부), 188,631원 83전(임시부) 합계 2,043,329원 98전으로 차액은 174,550원 64전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세입부의 증가는 주로 이자수입과 창경원 관람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에 의한 것이다. 세출부의 증가는 예상하지 않았던 왕전하의 입원에 따른 경비,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 덕수궁 개방을 위한 수선비 지출이 원인이었다.

□ 1933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8년도이왕가예산》를 통해서 본 1933년도 이왕가 예산은 세입 2,031,259원(경상부), 세출 1,824,949원(경상부), 206,310원(임시부) 합계 2,031,259원이다. 전년도인 1932년의 2,013,024원에 비해서 18,235원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 삼림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경상부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용도비(用度費), 장원비(掌苑費)는 감소하였지만 제향비(祭享費), 친용비(親用費), 향연비(饗宴費), 부동산관리비, 봉급 및 제 급여, 삼림비, 기본재산 이입금, 예비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임시부 세출 예산의 감소는 부동산 구입비는 증가하였지만 영선비, 임시편찬비 등이 감소한 것에 의한다.

이왕가 예산 중 세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들면 먼저 전년도에 이미 결정하였던 덕수궁의 일반 공개를 10월로 예정하고 계속해서 수선하였기 때문에 그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영선비(營繕費)와 장원비에 계상되었다. 동물원비에 있어서는 1933년도에는 대동물물 구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구입비가 삭제되었다.

5월 19일 이왕직 장관(篠田治策)은 이왕가에서 나요양소(療養所) 설립에 6만원을 3년에 나누어서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예산에 없었던 관계로 예비금 중에서 추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또 경성부 밖에 있는 고양군 송인면 소재 임야의 일부를 보성전문학교의 신축 용지로 불하해줄 것을 동교(同校)에서 요청해 오에 따라서 48,568평을 매각하였다. 또 府内の 부동산 중에서 불용에 속한 태평동 1정목(太平通 一丁目)의

291평과 재동(齎洞)에 있는 토지 396평 및 건물을 매각하여 대금의 일부는 부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1933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결산은 세입부 2,071,703원 33전(경상부), 135,323원(임시부) 합계 2,207,026원 33전, 세출부 1,920,788원(경상부), 286,238원 33전(임시부) 합계 2,207,026원 33전으로 차액은 175,767원 33전으로 예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세입부의 증가는 목재가격이 급등하여 화산삼림(花山森林), 문경삼림(聞慶森林)의 고손목(枯損木)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고 창경원의 관람자가 예상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덕수궁 미술관을 개설한 결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세출부의 증가는 동물원의 난방시설이 오래되어 송수관의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덕수궁의 개방과 함께 미술관을 개설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미술품의 수량이 예정보다 많아졌고 덕수궁 정원에 식목작 인부 등을 새롭게 고용하면서 용인비가 예비금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왕세자의 전용 해수욕장 부지 구입을 위한 39,484원은 예산에 없던 지출이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 계상되기도 하였다.

□ 1934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9년도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4년도 이왕가 예산은 세입 2,098,505원(경상부) 세출 1,906,127원(경상부), 192,378원(임시부) 합계 2,098,505원이다. 전년도인 1933년의 2,092,627원에 비해서 5,878원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임시부 부동산 매각대금은 감소하였지만 전년도 이월금, 삼림수입, 잡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경상부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관리비, 기본재산 이입금은 감소하였지만 제향비, 친용비, 봉급 및 제급, 수선비, 장원비, 삼림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임시부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은 임시편찬비, 박물관 진열품 구입비, 영정수보비(影幀修補費)는 증가하였지만 영선비, 부동산구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삼림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 및 제급여로 364,140원이며 다음으로 이강공가 보급금 186,000원, 영선비 65,600원, 임시편찬비 69,531원, 박물관 진열품 구입비 15,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을 보면 먼저 이왕가에서 조선나예방협회(朝鮮癡豫防協會)에 기부금 6만원을 3년에 걸쳐 하사하기로 하여 전해에 이어서 임시용금에 계상된 것을 볼 수 있다. 1933년부터 덕수궁을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는데 새롭게 석조전에 회

화, 조각 및 공예품 등 각 부문을 망라한 현대미술품을 진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진열은 일본에서 작품을 차입하여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차용비와 일본으로부터의 수송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 현대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입비 일부도 계상되었다. 또한 진열실의 증가,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영선비에 계상되어 있다.

1934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결산은 세입 2,371,732원 66전(경상부), 116,900원(임시부) 합계 2,488,632원 66전, 세출 2,137,541원 26전(경상부), 116,500원 (임시부) 합계 2,254,041원 26전으로 차액은 234,591원 40전으로 예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세입이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당시 예금 이율의 저하로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하자 수입증가를 목적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주식과 동양척식주식회사 채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배당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경성부 정동 1번지의 대지 3,700여 평을 매각한 대금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 1935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10년도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5년도 이왕가 예산은 세입부 2,124,212원(경상부) 세출부 1,933,591원(경상부), 190,621원(임시부) 합계 2,124,212원이다. 전년도인 1934년의 2,215,005원에 비해서 90,793원 감소하였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삼림수입,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전년도 조월금, 삼림수입, 잡수입 등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전년도에는 임시부에 부동산 매각수입이 있었던 반면에 1935년도에는 없기 때문이다. 경상부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은 친용비, 부동산 관리비, 장원비, 농원비, 삼림비, 예비금은 증가했지만 제향비, 용도비, 기본재산 조입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출 임시부가 감소한 것은 영선비, 박물관 진열품구입비, 임시사금(臨時賜金), 영정거사비(影幀擧寫費)는 증가했는데 임시편찬비, 부동산구입비, 영정보수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35년도 예산 중 주요한 사항은 이강공(李綱公)이 본년도에 결혼하기 때문에 동경의 경상경비에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게 된 점이다. 이 증가경비는 당연히 공가(公家) 세입으로 지불해야 하고 공가에서도 세입에 상당한 증수를 예상하지만 증가 경비의 전부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왕가에서 증가 보급하기로 함으로써 소요액이 계상되어 있다.

제 수당에 있어서는 이우공가(李鵠公家)에 어용 취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소요액이 계상되었다. 장원비에 있어서는 동물원에 사육 중인 맹수가 작년에 여러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사료값이 상승하여 부득이 사료비가 증가되어 계상되었다. 목장비는 사료값이 폭등하였고 순혈종마의 번식이 증가하면서 농후사료(濃厚飼料)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소요 경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계상되었다.

삼림비에 있어서는 본년도부터 제탄사업(製炭事業)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그 소요 경비가 작업비에 계상되었다. 박물관 진열품 구입비는 덕수궁에 진열할 회화(繪畵) 구입비 증가의 필요에 따라서 소요액이 계상되었다.

이우공가 임시사금은 본년도 결혼에 따른 임시 제 경비를 공가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소요 금액을 하사하기로 한 것이다.

1935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결산은 세입 2,565,422원 72전, 세출 2,088,666원 19전(경상부), 265,162원 39전(임시부) 합계 2,353,828원 68전이었다. 따라서 세입초과액은 211,594원 04전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다. 세입결산이 예산액보다 증가한 것은 목재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예정이 이상으로 매각되어 삼림수입이 예산액 54,085원보다 많은 64,769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창경원 야간벚꽃 입장료를 10전에서 20전으로 인상했음에도 예상외로 입장객이 많아서 예산액 60,050원보다 많은 90,813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비교하면 352,705원 27전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 58,741원 27전은 전년도 경비 조월사용액(繰越使用額)이고 293,964원은 추가예산액이었다.

□ 1936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11년도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6년도 이왕가 예산 총액은 세입부 2,070,272원(경상부), 560,000(임시부), 합계 2,430,272원, 세출부 1,949,062원(경상부), 481,210원(임시부) 합계 2,430,272원이다. 전년도인 1935년도 예산총액 2,418,176원과 비교하면 12,096원 감소한 것이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가 1,800,000원으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삼림수입,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본년도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에 있어서는 감소했지만 삼림수입, 기본재산수입, 관람료 수입, 부동산 매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상부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은 주로 향연비, 장원비, 삼림비, 예비비는 증가했지만 제향비,

친용비, 기본재산조입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36년도 세출 중에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건·이우공가(李鍵·李錫公家) 보급금(補給金)이다. 이 건 공가에 대한 보급금은 동가(同家)의 수지가 계속해서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 보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우 공가는 이 건 공가와 달리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가(同家)의 주요 재원인 곡가의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로 인한 예정 외의 경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만 보급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1935년 公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년도에는 공가에 보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 본년도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왕세자가 宇都宮 연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필요액이 증가 계상되어있다.

이왕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 고미술 및 기타 진열품은 창경궁의 고건축물과 1900년 창고 겸용으로 건축한 소규모 진열관에 진열하여 일반인이 관람하도록 해왔는데 그 건물은 전혀 진열관(陳列館)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람시설로서도 매우 부적합하였다. 또 기존의 진열건물은 7개소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있어서도 비경제적이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왕가가 소장한 수집품의 총점수는 1만 8천점에나 달하고 그 중 중요한 것도 많다. 이에 전문적인 진열관의 필요를 통감하다가 1934년 덕수궁을 공개하면서 근대양식 건축인 석조전을 개조하여 근대 일본미술, 회화, 조각, 미술공예품 각 부문을 종합하는 상설 진열관으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왕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을 전문적으로 전시할 공간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석조전 옆에 새로 조선고미술 전시관을 건축하여 소장품 중 각 시대, 각 부문별로 걸출한 조선 고미술품을 선별 진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신구(新舊) 미술의 전당으로 널리 일반인들의 관람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선 고미술과 근대 일본미술의 대조 연구, 조선 예술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왕가에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년도에 왕가 소유지 중 불용지를 매각한 대금을 재원으로 석조전 바로 옆에 이왕가 미술관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건물은 진열실 외에도 수장실, 창고, 사무실 등을 구비한 지상 3층, 연건평 1천여평으로 계획하고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300,000원을 임시부 영선비에 계상하였다.

또한 고종·순종실록 편찬 사업은 전년도에 마쳤으나 양조(兩朝)에 해당하는 국조보감이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36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1차년도 편찬비로 17,980원이 계상되었다.

1936년 8월에는 예비금 지출의 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는 원래 이왕직이 경영하던 이왕가 미술품제작소를 1922년 폐지함과 동시에 그 자산 전부를 현물 출자하여 주식회사로 조직한 것이다. 이왕직은 그 대주주였는데 이후 배당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실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당시 태평로 도로 확장에 당하여 사옥을 개축하거나 이전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당시 지가가 앙등했기 때문에 회사 부지를 평당 2백여 원 합계 27만여 원으로 동양척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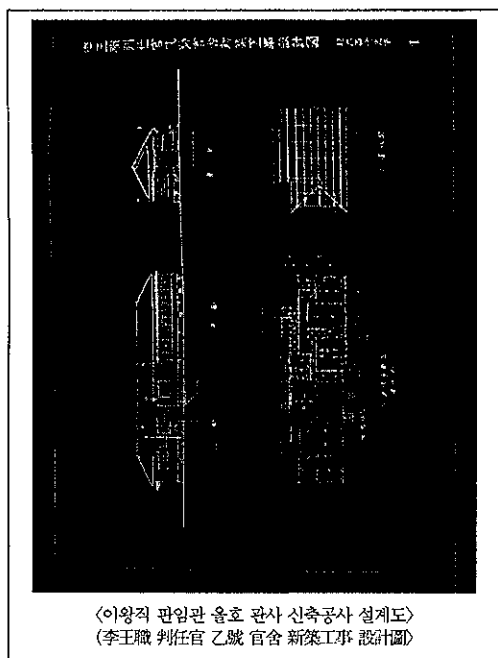
이 수입으로 종래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동안의 업적 부진에 비추어 보고 또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회사에는 경영 당초부터 함께 해온 많은 종사자들이 있고 회사가 해산된다면 줄지에 전원은 실업자가 될 형편이었다. 다행히 주가가 앙등하여 주주들은 대체로 보상받게 되었으므로 사장 이하 종업원, 직공에게 특별히 위로금을 하사하기로 하였으나 기정(既定)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어려우므로 예비금 중에서 지출을 충당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11월에도 세비 예비금 지출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다. 1936년에는 수해(水害)가 있어서 궁전, 능원묘 등 여러 곳에 파손이 생겨서 복구를 해야 할 곳이 많았고 수해를 당한 곳에 의연금 기타 하사금을 지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금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1936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경상부 2,381,966원 08전, 임시부 635,096원 46전, 합계 3,017,062원 54전이었고 세출은 경상부 2,083,908원 18전, 임시부 277,813원 44전, 합계 2,361,721원 62전으로 세입 초과액이 655,340원 90전이었던 것이다. 그 중 241,585원 17전은 다음 해 이월 사용액으로 413,755원 55전은 불용(不用) 처리되었다.

□ 1937년도 이왕가 예산

1937년에는 중일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세비로 대부분의 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이왕가로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곤란을 느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년도는 부득이 긴축예산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연히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본년도 이왕가 예산에는 예비금으로 충당하는 추가예산편성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소화12년도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7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232,716원으로 전년도 예산 2,430,272원과 비교하면 197,556원 감소한 것이다.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입은 경상부에서만 2,232,716원이고 세출은 경상부 1,966,972원, 임시부 265,744원이었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 및 제 급여로 582,390원을 차지하며 다음은 이강, 이우공가 보급금으로 186,000원, 영선비(營繕費) 177,071원, 예비

금(豫備金) 120,000원 등이다.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세입이 증가했지만 전년도에 있었던 임시부의 부동산 매각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상부 세출이 증가한 것은 친용비, 예비비는 감소하였지만 제향비, 부동산 관리비, 봉급 및 여러 급여, 여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덕수궁 미술관 건설비는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시행하는 중에 계획에 다소의 변경이 발생하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연건평이 약 90평 정도 증가하였고 공사에 사용될 철재(鐵材) 및 각종 재료와 임금 등이 상승하여 예산이 조정되었던 것이다. 당초 예산액 300,000원에서 개정예산은 382,000원 60전으로 82,000원 60전이 증액되었다. 증액 예산의 일부는 일반세비 중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년도 재원인 부동산 매각수입금으로 지불하도록 편성되었다.

1937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2,940,025원 05전이었고 세출은 경상부 1,932,164원 06전, 임시부 596,802원 02전, 합계 2,527,966원 08전으로 세입 초과액이 412,058원 97전이었다. 그 중 898원 47전은 다음 해 이월 사용액으로 411,160원 50전은 불용 처리되었다. 1937도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이 11,837원 32전 많아진 것은 예금이자수입이 예산보다 적어졌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목재가격이 급등하여 예정 이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향연비 10,306원 27전, 박물관비 1,828원 04전이 불용 처리된 점이다. 이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신년연회를 비롯한 모든 축하연회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또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미술품을 차용하여 전시해왔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송해오는 일이 어렵게 되었기 박물관비 중에서 운송비 지출이 불용 처리되었던 것이다.

□ 1938년도 이왕가 예산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여파로 물가,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1938년도 이왕가의 예산 역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 《소화13년도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8년도 이왕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19,133원으로 전년도 예산 2,333,422원과 비교하면 83,711원 증가한 것이다.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입은 경상부에서만 2,419,133원이고 세출은 경상부 2,223,131원, 임시부 193,982원이었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가 1,800,000원으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 및 급여 599,827원이며 다음은 이강, 이진공가 보급금으로 186,000원, 영선비 79,235원, 예비금 120,000원 등이다.

이 해에는 2년 전부터 덕수궁에 신축중이던 미술관이 완공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요구되었다. 미술관에서 근무할 사무관 1명을 비롯한 직원들을 채용해야 했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미술관에 전시품을 운송해오는데 사용될 경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왕가 예산은 여러 가지로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모든 연회가 중지됨으로 해서 향연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든가 전쟁에 출정한 군인, 전상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 특별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8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2,927,660원 02전이었고 세출은 경상부 2,140,363원 19전, 임시부 190,538원 12전, 합계 2,330,901원 31전으로 세입 초과액이 596,758원 71전이었다. 이 해 세입초과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액 다음해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을 종료하였다. 이해 세입이 예산에 비해 많아진 것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왕가의 수입 중의 하나인 목재의 가격도 상승하여 삼림수입이 예산액 116,800원보다 많은 174,007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예금이자 수입과 관람료 수입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세출이 증가한 것은 왕전하가 조선에 잠시 돌아오는데 사용된 경비와 여러 차례에 걸친 지방시찰에 사용된 경비가 여행비로 추가 지출되었고 조선에 머무는 동안 거쳐할 곳을 수선하기 위한 영선비가 예상 외로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관동대지진으로 인해서 대기(大磯)에 있는 별궁이 파손되어 수선을 위한 경비 8,600원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세출 임시부로 부동산 구입비 1,400원을 지출한 것은 난곡목장(蘭谷牧場) 부근에 있는 민유지를 구입한 것이다.

□ 1939년도 이왕가 예산

《소화14년도 이왕가예산》을 통해서 본 193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07,122원으로 전년도 예산 2,419,133원과 비교하면 287,989원 증가한 것이다.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은 경상부 2,695,497원, 임시부 11,625원이고 세출은 경상부 2,502,390원, 임시부 204,732원이었다. 세입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 세입초과액 596,758원을 전액 이월시켰고 삼림수입, 잡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왕가의 세입은 역시 세비(歲費)가 1,800,000원으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덕수궁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 및 제급여 629,152원이며 다음은 이강, 이진공가 보급금으로 186,000원, 영선비 108,672원, 예비금 120,000원 등이다.

1939년도에는 전쟁과 관련된 추가예산이 눈에 띈다. 중일전쟁 이후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궁전 내에 피난소를 설치하고 비상시 수도 사용이 곤란해졌을 경우를 대비한 우물을 굴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추가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또 경성부내에 주택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왕직에 근무하는 자들을 위한 관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관사를 신축하기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부지는 기왕의 소유지 중에서 적당한 곳으로 충당하고 재원은 쇼1938년도 세입 초과액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1939년도 이왕가 세비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경상부 3,053,794원 95전, 임시부 1,297,693원 89전, 합계 4,351,488원 84전이었고 세출은 경상부 2,754,497원, 임시부 1,011,625원, 합계 3,766,122원전으로 세입 초과액이 585,366원 84전이었다. 이 해 세입 초과액이 많아진 것은 전년도의 세입초과액이 전액 이월된데다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왕가의 수입 중의 하나인 목재의 가격도 상승하여 삼림수입이 예산액 175,000원보다 많은 264,298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해 새롭게 구입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증수와 창경원·덕수궁 관람료 수입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홍성덕)